

충남의 균형개발 전략과 과제

조봉운 ·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 차례 >

I. 서론

II.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1. 지역의 현황 및 특성
2.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
3. 계획과제의 도출

III. 충남의 비전과 균형발전 전략

1. 충남의 발전비전
2. 추진전략

IV. 전략적 추진과제

1. 충청권 전역의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및 세계도시지역화
2. 신행정도시 중심의 중핵도시권의 역동성 극대화 및 성장관리
3. 서해안거점도시권 육성 및 신행정도시권과의 연계 강화
4.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 및 경쟁력 있는 RIS 구축
5.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자원 개발
6. 국토 및 서해안권 중심지 역할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7. 균형발전과 지식·정보화에 대응한 기성시가지 재생(Regeneration)

V. 결론

참고문헌

충남의 균형개발 전략과 과제¹⁾

조봉운 ·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I. 서 론

충남지역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에서 기업체의 입지와 산업생산의 증가, 해외수출, 인구증가, 도시화 진행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내부구조를 보면, 인구변화, 산업성장, 도시발달 등 세 측면에서 성장지역과 쇠퇴지역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으며, 개별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 토지 및 자연자원 등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성격과 발전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근래 들어서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환황해경제권의 형성되고 있고, 신행정수도의 대안적 개발, 이미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하여 대전~당진간 및 서천~공주간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이 건설되면 충남지역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 충남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전략산업의 육성, 개발거점지역 등을 선별하여 집중 개발하고 그 파급효과를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시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충남지역내의 하위 지역간 개성과 균형의 상호 보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충남지역의 내부적인 불균형 현상과 추세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개별 지표를 통해서 각각 살펴본 다음, 다변량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전망한 바탕 위에서 충남지역의 가속적인 성장(accelerated development)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전략과 시책과제를 시론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II. 충남지역의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1. 지역의 현황 및 특성

1) 지리적 여건과 자원

1) 본 논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 2004년도 추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충남 균형개발 전략과 과제(2004.11.24)”를 일부 수정한 것임

충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고, 해양과 내륙을 연계시키는 양호한 항만입지를 보유하고 있어 환황해권의 요충지이며, 동북아 교류의 거점지역²⁾이다.

고속도로·철도 9개 노선이 중·횡단으로 통과토록 계획되어 지역간선 도로망과의 연계체제 구축이 용이하며, 서해안·당진~대전간·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의 동서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환황해경제권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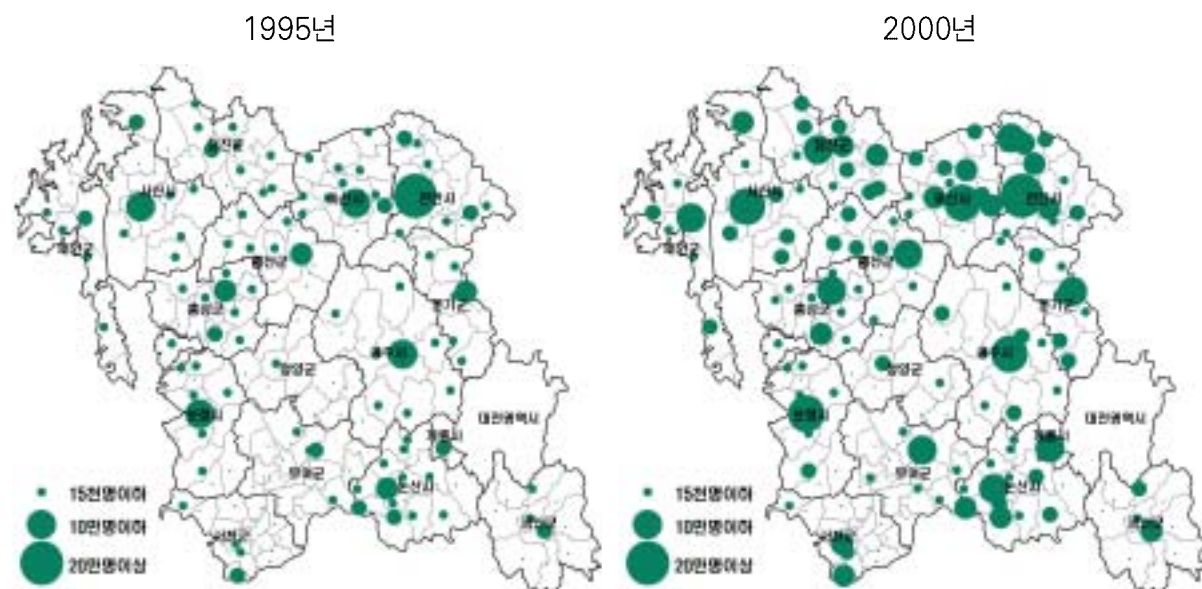
표고 100m 미만의 토지가 전체면적의 68%로 토지이용 및 개발의 효율성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녹지·해양·하천·호소 등 환경자원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체험·휴양·건강·탐방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백제·내포문화, 계룡산·태안해안공원·온천·인삼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2) 인구와 사회

충남인구는 193만명(세대당 인구수 2.79명)으로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2000년 사이에는 증가하다가 2000~2002년 사이에는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부권(천안·아산·서산·홍성)과 경부축 상에 있는 연기는 수도권의 파급효과, 신산업지대 형성,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추진의 영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외의 농어업을 중심산업으로 하는 시·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서천·청양·태안·금산 등은 인구 7만명 이하의 과소·낙후지역으로 쇠퇴하고 있다.

(그림 1) 1995년과 2000년의 충남지역의 인구분포



2) , 對 , 1999 對 40%

1996~2001년까지 충남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인구는 745,469명이며, 이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의 이동이 53.2%(396,702명)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많다. 그러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많은 인구가 전입한 바 있어, 충남지역은 일정 수준 여건만 구비된다면 수도권 인구가 U·J-턴 할 수 있는 유수지로서 잠재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인구구조 면에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1995년 175,752명(10.0%)에서 2003년 243,931명(12.8%)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³⁾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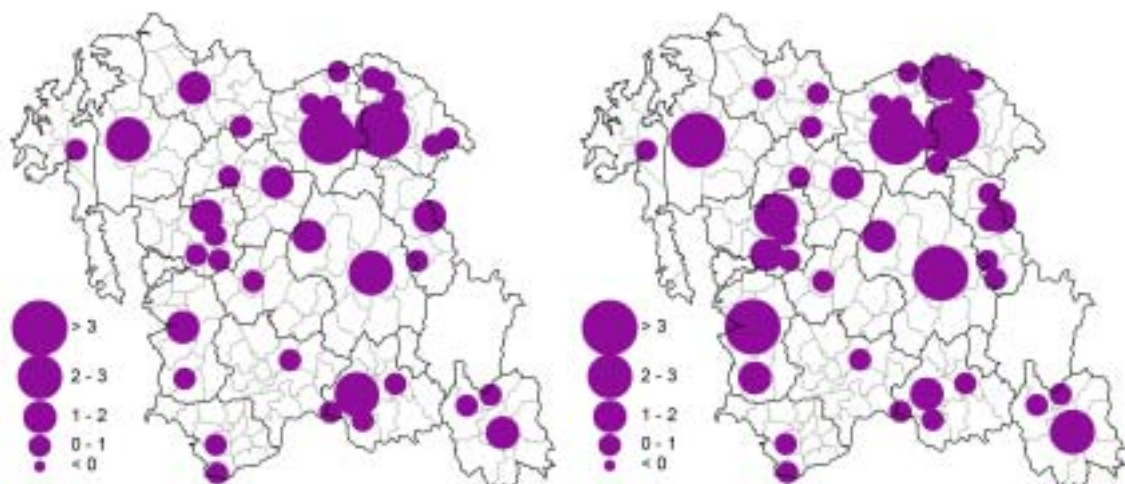
3) 지역경제

2002년의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28조원(1995년 기준년도가격 228,880억원)으로 전국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2002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지역내총생산중 농림어업의 비중이 13.7%로서 전국평균(4.7%)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충남지역은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고, 운수·통신등의 SOC 및 기타산업의 비중은 낮다.

북부지역 5개 시·군에 총 제조업체수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의 75%가 집중하여 농림수산업 중심의 나머지 시·군과의 발전격차 심화되고 있다.

(그림 2) 1995년과 2002년 읍·면별 제조업체수 변화



주: 범례의 숫자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로 등급을 나누었음

천안 TG 반경10km이내 12개 대학에 10만여명이 재학, 국내 최대 대학촌 형성하는 등 도내 34개 대학 입지(교수 3,890, 대학생 144,473, 대학원생 10,325)와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연구소 74개, 연구원 16천명) 입지로 첨단 신기술 이전·보급 여건이 타 지역보다 양호하며, 「계룡대」 입지로 軍, 産, 學 연계체제 구축도 가능한 지역이다.

3) 14% 65 가 7%

청양·예산·홍성 등 3개 군지역이 도내 한옥우의 30%(전국의 4.3%), 양돈의 30%(전국의 5%)를 사육하는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농업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 인삼생산량의 17%(관내·외포함)를 금산이 차지하고 1시일 인삼거래량(2002년)이 150톤/55억원에 달하는 전국 3대 약초시장 형성되어 있는 금산을 비롯한 논산·부여에는 인삼·약초 관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 공간구조

데이비스(W. K. Davies)의 기능지수법(Functional Index Method)에 의해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지 계층구조를 보면, 1981~2002년까지 제1계층은 대전시, 제2계층은 천안 洞部가 차지하며, 기능수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이전에는 4개의 계층에서 2002년에 5개 계층으로 계층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층간 변동을 보면, 1995년까지는 제3계층에 시·군청소재지 및 일부 읍이 포함되었으나, 2002년에는 3개 시의 洞부만이 3계층을 형성하고, 제4계층에서는 일반 읍·면소재지가 포함되었으나, 2002년에는 일부 시의 洞부와 군의 군청소재지가 4계층을 이루고, 나머지 지역은 5계층으로 분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위 계층 중심지인 대전과 천안의 중심기능 수행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시의 동부에서도 성장의 격차가 발생한 반면에 여타의 시·군 중심지들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기존 시·군 중심지의 중심시가지 재생(regeneration) 또는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있는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거점도시 조성 등을 의도적으로 도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지 계층 변화(1981~2002년)

구분	1981년 중심지계층	수행력 (지역수)	1995년 중심지계층	수행력 (지역수)	2002년 중심지계층	수행력 (지역수)
1 계층	· 대전시	40.30 (1)	· 대전시	46.10 (1)	· 대전시	46.69 (1)
2 계층	· 천안동부	7.12 (1)	· 천안동부	11.09 (1)	· 천안동부	9.93 (1)
3 계층	· 아산동부, 공주동부, 보령동부, 서산동부, 논산동부 · 예산읍, 홍성읍, 금산읍, 부여읍	23.72 (9)	· 아산동부, 서산동부, 공주동부, 보령동부, 홍성읍, 예산읍, 논산동부 · 조치원읍	19.07 (8)	· 공주동부, 아산동부, 서산동부	7.96 (3)
4 계층	· 조치원읍, 당진읍, 광천읍, 합덕읍, 서천읍, 강경읍, 연무읍, 성환읍 · 18개읍, 144개면	28.86 (162)	· 금산읍, 부여읍 · 17개읍, 147개면	23.74 (166)	· 보령동부, 논산동부, 조치원읍, 금산읍, 부여읍, 당진읍, 예산읍, 홍성읍, 태안읍 · 성환읍 · 서천읍, 청양읍, 계룡 · 12개읍, 149개면	12.82 (10) 22.60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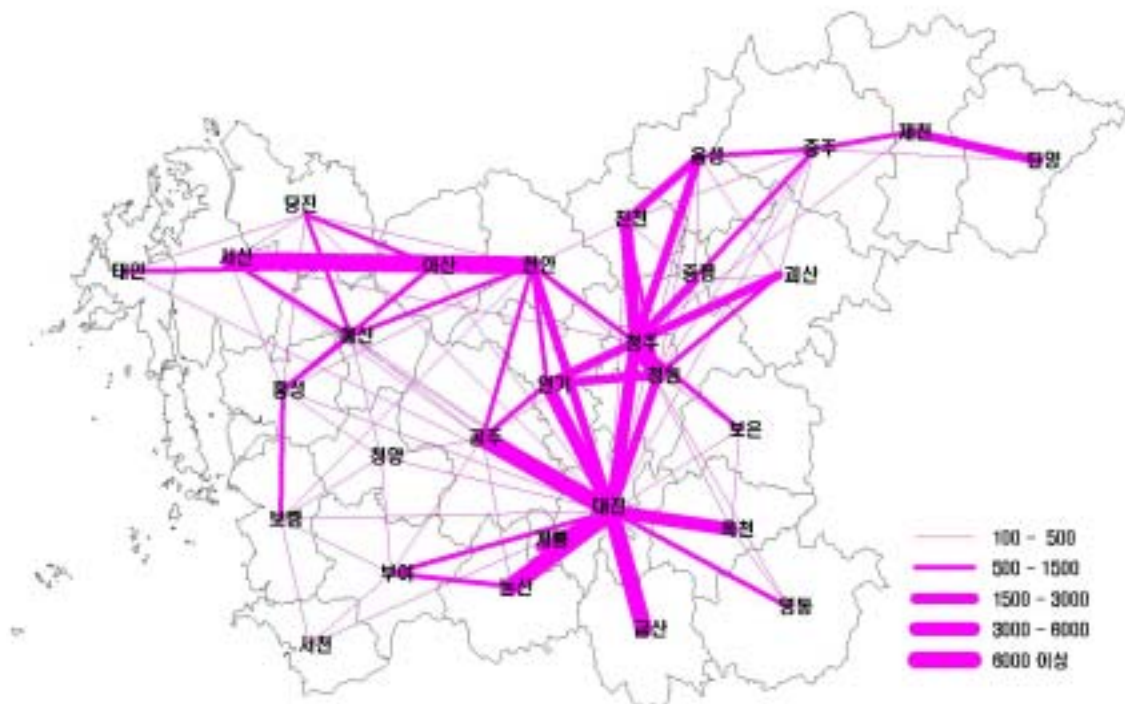
거점도시인 천안·대전이 충남지역의 동측에 치우쳐 있어 개발효과의 공간적 확산이 미흡하여, 서해안과 중부내륙의 시·군청 소재지는 농어촌서비스 중심지로서, 농어업의 쇠퇴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퇴로 상업·서비스업의 영세화·사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북부지역의 서산·당진·태안 등은 수도권으로, 서천은 군산 등에 상권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교통체계개선과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활동 영역의 광역화로 시·군생활권의 자족성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통근·통학 통행량을 통해 대전·충남북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청주, 대전-천안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거점도시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어, 천안-청주간 교통망만 개선된다면 조만간 광역도시권 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도시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클러스터의 형성 또는 초광역 혁신체계 구축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간의 협력 여하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거점도시들은 각각 광범위하게 배후의 연계지역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획된 고속도로망만 개선되어도 충청권은 전역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네트워크형의 도시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충청권의 통근·통학 통행량 분포



주: 통계청의 KOSIS 통계DB 중 2000년도 통근통학인구(10% 표본)자료 이용

지역간 연계 교통망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통합적 공간구조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어, 물류비용 증대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항만, 공항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임해형 산업·관광지대, 환황해권 교역기지로서의 기능에 제약이 있다.

5) 지방재정

충청남도의 재정규모는 6조4,739억원('04년 본 예산기준, 시·군 포함)으로 전국 지방예산의 5.8%를 차지하여, 도세 및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남의 82.6%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6.2%로서 전국 지자체 평균(56.2%)의 절반 수준이며,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경우 최고 50.9%(천안), 최저 13.4%(청양)로 20%미만이 15개 시·군중 10개 시·군에 달한다⁴⁾.

6) 종합분석: 지역의 유형과 발전격차

(1) 지역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충남지역의 유형 구분을 위해 각 시·군의 통계연보,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농업총조사 자료 등 읍·면을 단위로 하는 지역특성자료(인구밀도, 인구증감률, 고령인구율, 농가율, 제조업체수, 도소매업체수, 숙박음식업체수, 전업농가율, 겸업농가율, 임야율, 농촌적 토지이용률,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 12개 지표)를 구축하고, SPSS 통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4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Z-값으로 표준화하여 이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유형(도시지역형, 성장지역형, 평야농촌지역형, 어업 및 산촌지역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Arcview GIS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읍·면별로 결과를 [그림 3]과 같이 작성하였다.

도시지역형은 시·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에서 도시의 규모가 작거나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소재지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과거에는 시·군청소재지가 시·군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경부개발축과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권, 그리고 대전광역도시권 주변지역 도시들은 성장하는 반면 그 외 시·군의 중심지는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지역형도 도시지역형에서 제외된 시·군청소재지와 해당 군청이 입지한 읍지역, 그리고 천안시의 대부분의 읍·면지역이 포함되었다. 도시지역형에서 제외된 시·군청소재지는 미약하나마 지역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타 면지역보다는 성장된 도시모습을 갖추고 있고, 수도권에 인접하고 경부개발축 상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천안과 그 주변지역들은 수도권의 개발억제정책으로 산업입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북부지역은 최근들어 항만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성장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평야농촌형은 당진, 서산, 예산, 홍성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과, 논산, 부여, 서천으로 이어지는 금강주변지역으로 평야지역이 속하는데, 천안의 일부지역은 과거에는 농촌지역이었으나, 산업입지와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해 성장지역형으로 분류되고 남은 지역이다.

어업 및 겸업지역형은 서해안의 어촌지역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일부 하천주변지역도 이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촌지역형은 계룡산, 칠갑산이 있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으로 지형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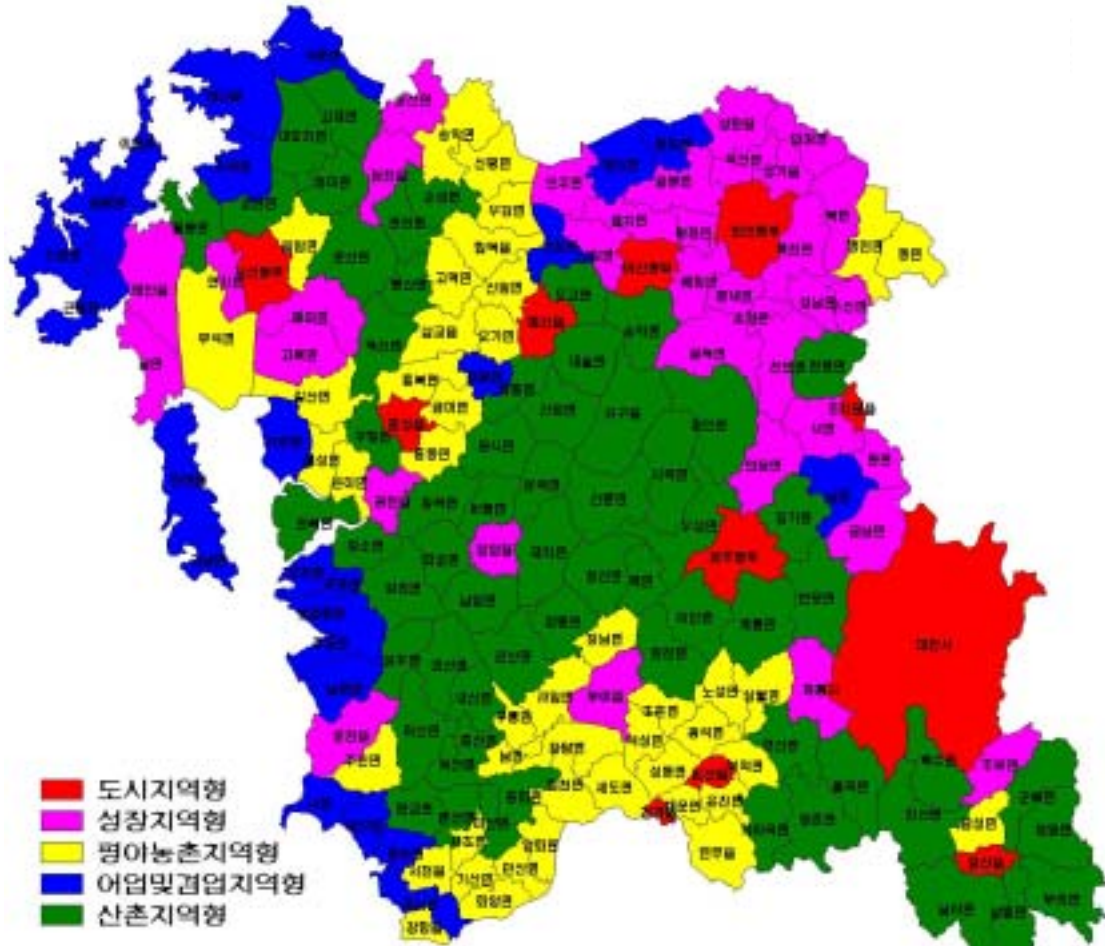
4)

38.5%, 41.3%) 1/2 ~ 1/5

(25.2%, 50.0%, 53.2%,

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변화가 거의 없거나 매우 느린 지역이다.

(그림 4) 2002년 군집분석에 의한 지역유형 분포



(2) 지역의 격차

지역의 격차를 알기 위해서, 1995년과 2002년 읍·면·洞부를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으로 비교하여 보면, 인구와 관련된 속성값은 그 편차가 증가하였고, 토지 및 사업체와 관련된 속성값은 반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편차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를 발생하는데, 이는 제조업체수의 표준편차별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2〉 1995년, 2002년 지역간 속성별 편차

구분	1995년				2002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인구	10,605.50	19,377.13	226,653.00	2,295.00	10,855.79	25,380.10	305,112.00	1,727.00
세대수	3,156.73	5,934.98	70,149.00	747.00	3,769.29	8,488.56	102,283.00	694.00
인구밀도	2.49	3.92	26.48	0.38	2.47	4.31	30.28	0.26
가구원수	3.36	0.16	3.87	2.94	2.78	0.17	3.18	2.27
농가	1,153.01	941.57	12,547.00	141.00	1,024.29	346.81	1,995.00	313.00
경지율	30.75	16.69	125.43	3.47	28.66	14.74	116.05	2.61
임야율	53.13	43.59	571.79	2.92	49.27	18.69	91.73	2.48
시가지비율	5.78	4.82	50.72	1.43	6.94	4.33	29.76	1.64
사업체수	503.83	1,325.62	14,872.00	28.00	566.45	1,117.67	9,361.00	35.00
종사자수	2,050.84	4,765.62	50,947.00	79.00	2,438.15	4,035.93	28,590.00	109.00
최근창업체수	326.10	1,007.11	11,265.00	2.00	271.76	664.38	5,848.00	3.00
업종수	43.91	19.52	128.00	10.00	57.75	24.89	138.00	15.00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1996, 2003

2.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

1) 거시적 여건변화 전망

신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특화발전과 낙후지역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자율적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정부·호남고속철도 등 고속교통망의 확충으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화되어 통근·통학·경제·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초고속 정보망의 구축 및 활용으로 정보 접근성의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해소되는 時空自在(Ubiquitous)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5都2村型』 생활패턴이 확산되고 있어, 농·산·어촌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농·산·어촌형 혁신클러스터의 개발과 대도시권 및 교통접근로 인근에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복합 휴양레저 테마파크의 조성 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및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대산항, 당진항, 보령항 등 서해안의 항만을 조기에 개발하여 교역창구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2) 충청남도의 여건변화 전망

충청남도는 양호한 지리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거점항 개발, 동서교통망 구축, 산업시설 확충 등으로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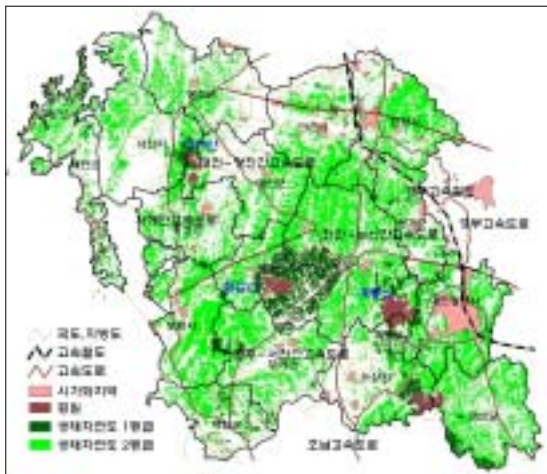
신행정도시 건설로 충남지역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며, 신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천안·아산, 논산·공주, 대전, 청주

등이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도시권이 출현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간 결절지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국내 지역간 교통·물류·유통기능의 입지 잠재력이 증대되고, 수도권 산업 및 경제기능의 대안적 입지 장소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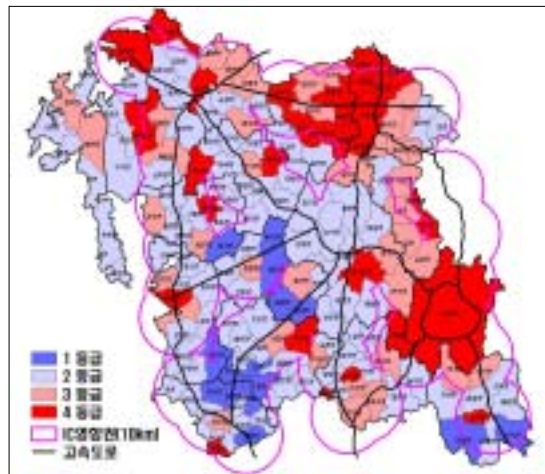
대전·청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등의 광역개발계획이 관련지역간 충분한 합의와 협력이 요구되며, 상생관계 속에 추진될 경우 많은 개발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문화, 경관, 자연자원을 토대로 개성적인 지방문화와 첨단기술을 갖춘 쾌적한 전원형 정주공간으로서 매력력이 증대될 것이다.

〔그림 5〕 교통체계와 자연환경



〔그림 6〕 낙후지역과 고속도로영향권



3. 계획과제의 도출

1) SWOT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교류중심지로서의 입지적 장점 보유 ○ 풍부한 관광문화, 해양자원 보유 ○ 다양한 문화·역사·경관자원 보유 ○ 우수대학 및 전문인력 집적기반 확보 ○ 국제 수준의 특화관광상품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동서지역간 공간 통합성 미약 ○ 도내 지역간 발전격차 심화 ○ 국제업무, 중추관리, 전문서비스기능의 취약 ○ 대전광역시의 분리로 지역중심성 취약 ○ 재정자립 및 금융환경 취약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 ○ 서해안지역의 접근성 개선 ○ 신행정도시 건설 및 수도권기능 이전 ○ 중앙정부의 서해안 개발 강화 ○ 지역발전의 열기, 참여의식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 상존 ○ 북부지역의 혼잡·난개발 심화 우려 ○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 심화 가능성 ○ 수도권 저부가산업의 역내이전증대 ○ 개발투자성과의 역외 유출

2) 계획과제

강점(S)의 극대화	약점(W)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산업의 육성·특성화 ○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지속 발굴 ○ 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 특화관광상품의 고품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간 광역교통망 확충 ○ 신도시개발 및 정주권 체제 구축 ○ 서해안~양대 문화권 연계관광 활성화
기회(O)의 활용	위협(T)의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문화·교통·물류인프라 확충 ○ 신행정도시 건설 지원 및 수도권기능 이전의 능동적 대처 ○ 중앙정부 및 인근시·도와의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개발과 부동산 투기방지 ○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추진 ○ 생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방지

III. 충남의 비전과 균형개발 전략

1. 충남의 발전비전

충남지역은 이상과 같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기초를 수용하면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비전과 추진전략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든 도민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문화공동체 충남 창조”를 비전으로 하고,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 동북아 시대 경제·문화의 중심축”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비전과 목표가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적 성장동력의 발굴 및 가속적 추진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2. 추진전략

충남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내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개발거점 형성전략, 네트워크 전략, 그리고 개성화 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발거점 형성전략은 신행정도시·대전·청주·천안 등의 광역도시권 연합체의 일방적 흡인력에 대응하여 서해안의 일정 지역에 거점도시(권)를 육성하고, 기존 중소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해 중심성·거점성을 확보하며, 신활력도시 등 다양한 신개발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다. 나아가서 충청권 전체를 네트워크화 하여 인구 500만의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충족하는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 region)으로 발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전략은 산업적 측면에서 지역혁신체계(소·중역, 광역, 초광역)의 형성, 격자형의 고속교통망 구축 및 IC연접부 개발 등 새로운 활력거점의 창조 등을 포함하며, 상호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셋째, 개성화 전략에는 지역문화권 육성, 특화관광자원 개발, 농산어촌 신자원의 다양한 활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충남지역의 지리·지형적, 자원적, 인문·사회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IV. 전략적 추진과제

1. 충청권 전역의 네트워크 도시체계화 및 세계도시지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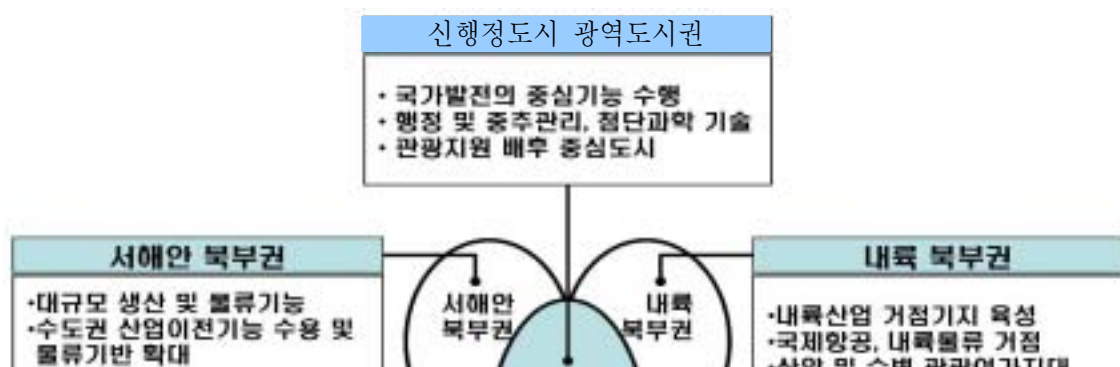
신행정도시의 건설은 장기적으로 충청권이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하나의 세계도시 지역(Global City Region)으로서 자립적 경제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충청권에 고차원적인 도시기능(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진 신행정도시가 건설되고, 기존의 중심도시들이 특성화하여, 이들이 주변의 소도시지역과 연계되어 전체적인 도시네트워크 속에서 통합되어질 경우 수도권과 같은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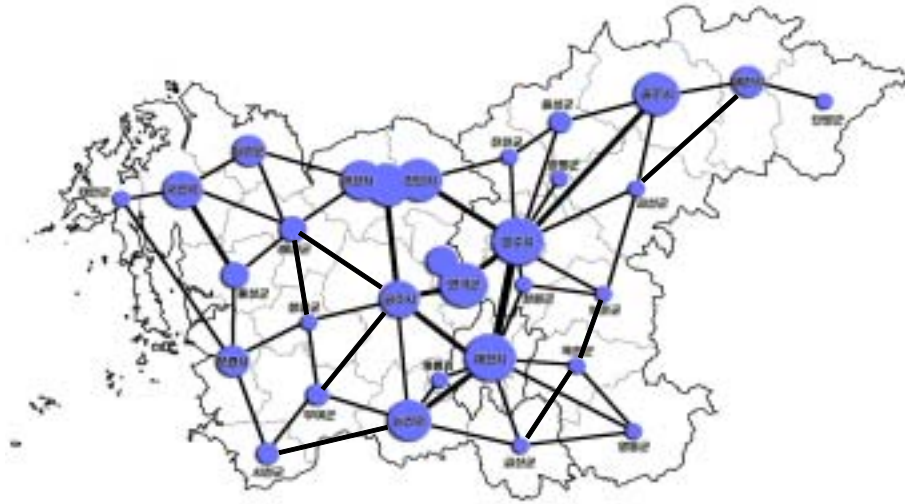
충남, 충북, 대전의 각 도시 및 지역간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구별되는 자율적인 경제권역이 가능하고,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동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세계 대도시와 경쟁·협력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권 교류·협력의 Hub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그림 7) 충청권 공간개발의 구도



[그림 8] 장래의 도시체계



2. 신행정도시 중심의 중핵도시권의 역동성 극대화 및 성장관리

3개의 동서내륙축 외에 「보령-신행정도시-영덕」을 잇는 「내륙축」을 추가하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권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네트워크를 우선하여 구축한다.

신행정도시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취합·가공·활용하는 첨단정보통신산업과 교육·연구기능, 문화·관광산업, 국방산업 등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청도내 주변 도시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을 전략적으로 적극 육성하여 신행정도시와 연계된 RIS를 구축한다.

대전-청주-천안 을 핵으로 하는 초광역 RIS를 구축하여 세계도시지역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현재는 3개 시·도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 RIS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더욱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신행정도시와 대전광역도시권, 청주광역도시권, 천안·아산광역도시권 상호간 기능분담 및 긴밀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천안, 아산, 연기, 공주·부여, 논산, 계룡 등은 적정규모의 전문화된 도시로 육성하고, 주변의 대전 및 청주시와 협력·제휴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별 기능분담과 상호보완적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3. 서해안거점도시권 육성 및 신행정도시권과의 연계 강화

1) 신행정도시권에 대응한 성장거점도시 육성(1안)

신행정도시가 건설될 경우, 충남의 東部지역에는 신행정도시와 대전권, 천안·아산권, 청

주권의 복합적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발전거점이 형성되는데 비해, 내륙·서해안권에는 인구 13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들이 분산되어 분포하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東部지역에 대한 대응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서해안권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적지를 선정하고, 광역적 행정·교육·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적 복합 자족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신행정도시의 건설 단계보다 앞서서 서해안 성장거점도시를 건설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역적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해안 거점도시권 육성(2안)

충남 서해안지역의 여건상 단일의 대규모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기존 및 신규의 전문화된 중소규모 집적지들(도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항만 등)이 교통·정보망으로 긴밀히 복합·연계된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 실현성, 개발 소요기간, 인접 시·도에 대한 선발이익 확보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이를 위해 기존도시를 특화·전문화하고,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산업·물류·유통거점으로 조성하며, 항만배후 및 서해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 IC 연결부(활성화거점)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교류와 산업집적 활성화를 촉진토록 한다.

또한, 거점(도시와 각종 집적지)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체계와 통합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간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며, 지자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3)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3안)

유입인구의 초과분이 정주하고 각종 기능이 입지하게 될 신행정도시 주변의 도시 및 농촌지역은 신행정도시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신행정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충남의 내륙 및 서부지역은 파급효과가 작거나 오히려 역류효과가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충청권 전체를 혁신도시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충청권 외곽지역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지역의 자립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신행정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도시의 구축을 예정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도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도시들 간의 현격한 규모 및 경제력 차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신행정도시 원거리 충청지역의 낙후는 신행정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도시 인근도시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충청권 지역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함해, 혁신도시의 구축 대상에 포함하고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4.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 및 경쟁력 있는 RIS 구축

1) 전국 제일의 선진 농·축·수산업 육성과 농촌경제 다각화

충남농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의 IT활용체계 구축, 식품산업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본격적인 수출 농업으로 우리농업의 활로개척,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육성하는 등 분권화시대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Well-being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안전관리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하기 위해 GAP, 생산이력제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대 적용하고, 비료·농약 과다사용과 집단사육 등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대형유통업체 확산, 디지털 활용 보편화 등 유통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한다.

2)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 Cluster 형성 및 RIS 구축

디스플레이협력단(천안·아산 5개 대학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세계적인 「Display Korea」로 육성하고, 디스플레이 관련 산·학협력 및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자동차산업 혁신체계(RIS)구축(2009년까지 500억원 투자)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하여 아산·서산지역의 생산기반과 천안지역의 R&D기능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천안·아산지역에 집적된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연계, 게임·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주, 예산, 홍성 등 지역의 잘 발달된 농림어업, 축산업을 바탕으로 농업, 해양, 동물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업자원의 사업화와 기능성 식품, 동물백신, 바이오 장기 등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3) 지연산업육성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모색, 지연산업 중심의 소지역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산업기반 조성 및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연산업을 육성한다.

IT월드특구, 오토밸리특구, 경제자유특구, 과학특구, 안면도관광특구, 영상단지특구, 생태교육특구, World Village Theme Park 등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육성 차원에서 선택적 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발전잠재력 발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5.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자원 개발

1)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의 기반조성

백제문화권을 국제적 역사문화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백제역사 체험의 장」을 마련 등

공주·부여·논산(일부)의 백제문화권(1,620km²) 종합개발계획 5개 부문 38개 사업(문화유적정비·재현, 관광휴양시설 확충, 도시환경정비, 도로교통망 확충, 계룡신도시 건설 등)을 지역별로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서산·보령·홍성·예산·당진·태안 일원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955km²) 4개 부문 49개 사업(정신문화창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확충,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해 내포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정비와 서해안관광지와 백제문화권을 연계하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의 주요 문화재 및 근현대 문화유산, 시설, 활동 등에 대한 자료수집, 분포지도 작성과 정보제공 등 문화 인프라-net의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문화시설 및 문화활동 행사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계룡산 도예촌(공주 상신리), 문화마을, 예술인촌 등의 조성을 통한 문예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2)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한 거점관광지와 관광벨트 육성

자연의 특이한 현상, 바다경관 및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과 해수욕장 중심의 위락·휴양형 관광지대를 구축하고, 천안·아산·덕산·홍성·마곡·도림온천 등 11개소 온천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역사속의 온양 온궁(溫宮)복원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하는 등 전국제일의 온천휴양관광지대 조성과 역사속의 온천관광자원을 발굴·복원한다.

논산과 계룡지역의 호국테마관광지대를 조성하고, 금산인삼과 약초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Hearth Care」형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한다.

3) 충남 지역특화 관광상품과 지역브랜드 발굴·육성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문화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레저스포츠 관광객을 위한 체육·레저테마파크를 조성하며, 천안·아산 고속철도역을 연계한 철도관광상품을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한다.

지역브랜드 및 지역상징성을 활용한 메가이벤트 행사를 통한 장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개발 등 브랜드 및 판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

4)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시 고령 인구나 농촌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실버농업'을 도입하고, 도시 고령인구를 쾌적한 농촌 테마마을로 유치, 능력에 맞는 영농방식을 부여하여, '소득 추구형', '관광 농업형', '여가 활용형'으로 개발한다.

전직 공무원, 기업체 등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시니어 클럽을 활성화하고, 클럽내에 전문상담팀(교육, 세무, 가정문제, 환경 등), 자원봉사팀(방법, 환경보호, 청소년 선도 등), 교육 및 사업자문팀(전화, 가정방문 등)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시, 군 단위 노인건강증진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노인에 부응하는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 요법 등을 소개하며, 지역내 독거노인, 정신적 고독,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등 지역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6. 국토 및 서해안권 중심지 역할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도시 중심의 광역교통망 형성

신행정도시 주변 순환고속도로망(100km),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연장구간 24km) 및 서천~공주(58km)간 고속도로, 보령~공주(45km), 태안~당진~천안~울진(338km)간 고속도로, 공주~청주(28km)간 고속도로 건설 등 고속도로망을 시급히 구축한다.

(그림 9) 국가간선망 구상(안)

기존계획



개선방안



가 필요하고, 고속도로 IC 연결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적정기능·시설을 도입하며,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7. 균형발전과 지식·정보화에 대응한 기성시가지 재생(Regeneration)

1) 기존도시의 특화기능 육성

기존 도시의 핵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가환경 정비, 도시형 新事業 육성, 전문기업지구 도입, 전략산업 육성 등의 “도시의 핵심기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별로 환경개선형 지구단위계획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 정비기법을 도입하여 그 특성과 잠재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하는 시범도시정책, 소도읍종합육성정책 등의 모델도시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기성시가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적용

도심지역의 공동화에 대응하여 기존 질서유지를 전제로 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심에 집적된 시설이용의 편익성 제고와 활용을 통해 고령인구의 주거지로 활용하고, 기존의 역사성과 문화성 강화로 도심의 활력을 증진, 매력도를 향상시키며, 문화·공공·신산업 육성 및 시설 정비, 시민이 모이는 종합교류의 장 조성,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주차장의 정비 및 적정배치, 중심가로 개선 등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확충한다.

〈표 3〉 도심지역의 거시적·미시적, 소프트·하드웨어적 정책

	소프트웨어적 정책	하드웨어적 정책
거시적 정 책	·신개발 프로젝트 지향에서 중심 시가지정비로 도시정책 전환	·도시외곽지역의 신개발사업 억제 ·대형점 입지규제와 교외 및 주변지역 시가화억제
	·특별용도지구지정	·기업유치지구, 세제감면
	·도시교통의 정책전환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보행)에 의한 접근성 제고
	·도심지역 세력권내 도시정비를 통한 성장 촉진	·교통축 강화 및 주변지역 정비로 배후인구 정착화 ·지역간 도로 정비 및 확충
미시적 정 책	·도심지역 이미지(Image) 제고	·개별 상점재생, 전문화 및 특화거리 개발, 걷고싶은 거리 조성
	·지구별 정비사업추진	·환경불량지구:민+관, 양호지역:민
	·소프트웨어 개발과 행·재정지원	·거리축제 등 ·유통단계 현대화 : 공동구매·택배제 등의 지원

V. 결론

충남은 신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한 국가주도형에서 지방주도형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고속철도·고속도로 등의 고속교통망 건설 등 지역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충남은 신행정도시의 입지지역으로써 정치·행정·산업적으로도 21세기의 국가성장동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충남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충남의 내부구조는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북부 및 동부지역에 편향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시의 기능을 균형발전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성장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상호 상생하는 윈-윈(Win-Win)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구는 상주인구의 격차를 교류인구의 증대로, 산업은 전후방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구축과 육성을 통해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적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신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충남발전연구원(2001),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충청남도
_____ (2001), 충남 2010 정책비전, 충청남도
_____ (200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연계발전전략 수립, 충청남도
_____ (2004), 충청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충청남도
국토연구원(2000),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남도(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충청남도 내부자료
김정연(1998), 충청남도 도시체계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1998), 충청남도 조건불리지역 실태 및 개발전략
권오혁(2004), “혁신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연합학술대회 논문집』, pp93~138
송두범·조봉운(2004),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공주시의 발전전략 II”, 『신행정수도 입지 기념 학술심포지움』,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pp41~59